

남자는 배짱 하나로 산다고 외치던 김성현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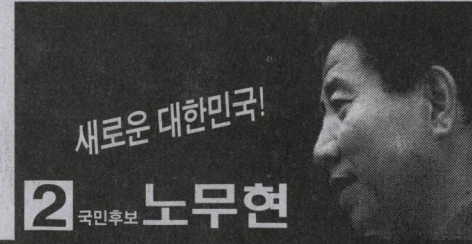
검게 물들인 야전잠바 하나로 초여름까지 지내던 김성현씨,
입사 면접일, 빌려 입은 사촌형의 짧은 양복바지에도 당신은 당당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첫사랑을 택시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고, 당신은 사당동
에서 종암동 자취방까지 은하수를 피우며 겨울밤길을 4시간이나 걸었습니다.
이제는 배도 나오고 사무실 책상도 창가로 옮겨 앉은 40대, 지각한 부하직원
야단치는 것도 조심스럽고, 자식을 말대답도 조금씩 시큰둥해집니다.

돈 벌어 작은 고아원을 하나 짓겠다는 것이 젊은 날의 꿈이었던 당신,
이젠, 지하도 계단에 놓인 모자에 가끔 동전을 넣는 것으로 꿈을 대신합니다.
김부장님! 아니, 겨울밤길 4시간 정도는 아직도 걸을 수 있는 김성현씨!
**40대, 행복을 만들기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행복한 변화, 노무현이 시작합니다.



노무현후보와 만나세요

- 12월 4일 MBC 21:50~ 22:10 (노무현 후보)
- 12월 4일 KBS1 18:40~ 19:00 (찬조 연설원)



40대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①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 새천년민주당

34064